

충북 출신 중국 이주민 집단의 어휘사용 변화 양상*

: 정암촌의 충북 방언을 중심으로*

박경래**

Abstract

Park, Kyeong-Rae. (2024). "Change Patterns of Vocabulary use in a Chinese immigrant group from Chungbuk Provinc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2(1), 225-262. This study aims to explore changes in vocabulary use in Jeongamchon, which was founded by immigrants from Chungcheongbuk-do, Korea, in Chin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first generation of Chungcheongbuk-do and Jeongamchon immigrants as well as the second generation of Jeongamchon immigrants. The data were divided into eight categories. The Jeongamchon community preserved a considerable number of dialects from Chungcheongbuk-do but also showed the transition of words into Chinese Korean. Examples of Chungcheongbuk-do dialect words that are highly conserved in Jeongamchon include words frequently used in daily life such as words about the human body and titles for relatives and family members. In contrast, words from Chungcheongbuk-do dialects indicating entities that do not exist in Jeongamch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geographical environments or sociocultural differenc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A2A01044656)

* This paper refines and organizes the contents of the keynote lecture presented at Ewha Womans University on April 22, 2023, and the topic presentation at the Korean Linguistic Society on December 16, 2023.

** Author: Kyeongrae Park. Professor Emeritus, Semyung University: Geumho Eoulim Apartment 110-1001, 73-14 daesin-ro, Heungdeok-gu, Chungcheongbuk-do 28582, Korea: Email: krpark123@hanmail.net

Received 20 February 2024; Reviewed 20~4 March 2024; Accepted 7 March 2024

www.kci.go.kr

between Chungcheongbuk-do and Jeongamchon, were at the verge of extinction. The indigenous vocabulary items in Jeongamchon, which refer to objects reflecting sociocultural differences from Chungcheongbuk-do, were substituted into the Chinese-Korean dialect, reflecting local culture.

Keywords: Chinese immigrants, Jeongamchon, geographical environments, sociocultural differences, Chinese Korean

1. 서론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와 맞물려 중국의 조선족¹⁾ 사회도 인구의 도시 집중과 한국으로의 유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해왔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거나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²⁾ 조선족의 인구이동과 거주지의 해체 및 재편은 이들의 언어 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한·중 수교 이전까지는 안정적이던 언어 상황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³⁾

2010년 6차 전국 인구 조사 통계에 의하면 중국 거주 조선족의 인구는 183만여 명으로 4차 조사 때의 192만여 명에 비해 약 9만여 명 줄었다.⁴⁾

- 1) 여기에서의 '조선족(朝鮮族)'은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인 한민족(韓民族)을 뜻하며 '재중동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쓴다.
- 2) 사회학의 관점에서 인구이동에 따른 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는 권태환(2005)에 잘 정리되어 있고, 연변 조선족 사회의 초기 변화에 대하여는 한상복·권태환(1993)에 잘 정리되어 있다.
- 3) 2023년 12월 말 기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2,507,584명이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32.1%에 달하는 627,450명이다. 2010년 통계로 중국 조선족 인구가 약 183만 명임을 감안하면 조선족의 1/3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는 셈이다.

총계	중국		베트남	타이	우즈벡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기타
	한국계	중국계							
2,507,584	627,450	314,945	271,712	202,121	87,698	64,055	63,369	63,226	813,008
	942,395								

특히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에서 약 26만여 명 줄었다. 그리고 조선족 인구의 약 34%에 해당하는 62만 7천 명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들이 거주지를 떠나는 현상은 정암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⁵⁾

이러한 인구이동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 1938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충북 출신 중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원 충북 방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지향점이다. 즉, 동일한 방언권에 속하던 화자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언어 공동체인 정암촌에서 사용하는 방언이 방언권을 달리하는 인접 언어집단과 접촉한 결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휘 사용에 한정하여 어떤 어휘들이 유지되고 어떤 어휘들이 세대를 달리하면서 변화하거나 소멸하거나 다른 어휘로 교체되는지를 계량화함으로써 어휘 사용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정암촌 언어집단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세대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사용 유형별로 분류하고 계량화함으로써 세대 간의 어휘사용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자료 조사는 충북 거주 노년층 제보자와 충북 출신 이주민의 노년층 세대와 장년층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주 이전과 이주 이후의 어휘사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북 청주 출신 이주 1세대 노년층의 제보자와 동일한 연령대의 충북 청주 거주 제보자를 조사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이어서 정암촌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 2세대 제보자들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에 얼마만큼의 어휘사용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조사된 어휘는 7개 부류로 나누고 각각의 어휘 부류에 따라

-
- 4) 제7차 전국 인구 조사는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5) '정암촌'에 대하여는 다음의 '1.2. 정암촌의 형성과 개관'을 참고할 것. 필자가 정암촌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주민들도 많았고 어린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연령층도 다양했지만 마지막으로 방문한 2023년에는 연로한 어른들과 몇 분의 환자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 6)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조사된 전체 어휘 가운데 1. 농경 2. 인체 3. 친족 4. 식물 5. 동물 6. 육아 7. 수사와 관련된 어휘들만을 관찰대상으로 삼았다.

어떤 어휘가 유지되고 어떤 어휘가 변화하거나 교체되거나 소멸하는지 등 8가지 어휘사용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어서 어휘 부류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된 어휘를 계량화함으로써 어휘사용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어휘 부류별 어휘사용 유형을 통합하여 전체 어휘에 대한 유형별 어휘사용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암촌 방언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암촌을 포함한 조선족 언어 공동체들은 상위어인 중국어와 이중언어 사용 상황에 놓여 있고 동시에 상위어인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둔 조선어와도 이중언어 사용 관계에 있다.⁷⁾ 이런 이중언어 상황에서의 언어사용은 언어 정체성이나 언어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과 언어 태도와 관련하여 언어사용 실태 전반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2012)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조선족 언어 공동체에서의 언어사용 양상이 변한다는 것은 조선족들의 언어 정체성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선족들의 언어 정체성의 변화는 이들이 사용하는 조선말에 대한 언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은 박경래(2002a, 2002b, 2018)에서도 밝혀졌다. 정체성의 변화와 언어 태도의 변화가 언어사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은 정암촌 언어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 정암촌의 형성과 개관

정암촌은 중국의 동북쪽 끝단인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에 속하는 작은 마을이다. 양수진은 과거 육진 지역의 하나였던 함경북도 온성과 두만강을 사

7) 연변지역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하여는 일찍이 럽광호(1990)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 글에서 ‘조선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조선말’과 동일한 의미로 쓴다. ‘조선말’은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우리말, 즉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말 방언’과 ‘조선말 표준어’를 아우르는 의미로 쓴다. ‘조선말 표준어’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도록 표준으로 정한 말로 필요한 경우 ‘조선말’과 구별하여 쓴다. 특별히 ‘조선말 방언’의 어휘가 분화한 어형을 언급할 때는 ‘조선말 방언형’을 사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충북 방언’의 분화형을 언급할 때는 ‘충북 방언형’을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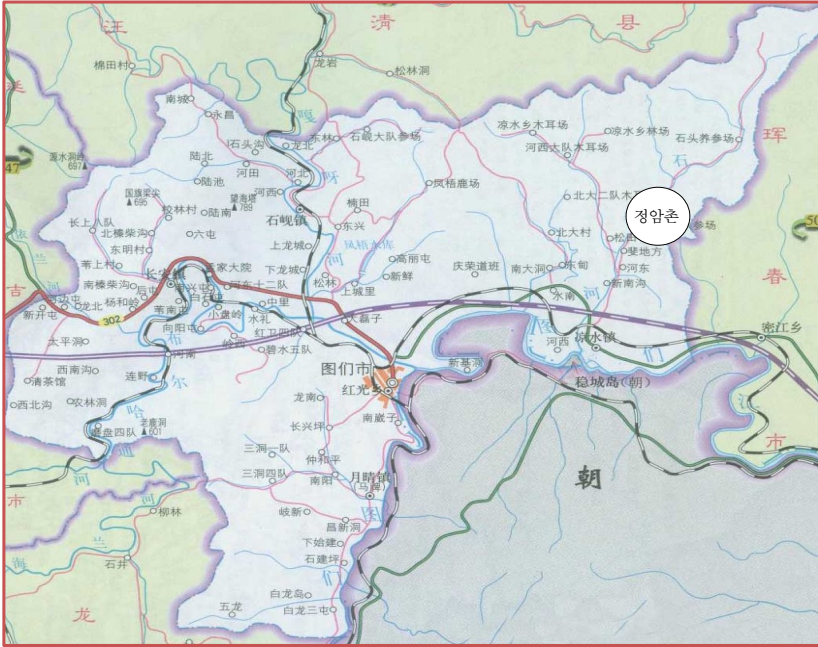
이에 두고 마주해 있다. 양수진은 연길시에서 도문시를 거쳐 훈춘시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다.⁸⁾ 연길시에서 양수진까지의 거리는 약 85km이고, 정암촌은 양수진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그림] 참조). 제보자인 이용안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정암촌은 일제 강점기인 1938년 1월 충청북도 청원군(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원군(현 충주시)에서 이주한 80가구의 주민들이 황무지를 개척하여 형성된 마을이다.⁹⁾ 논이 거의 없고 농토는 대부분이 밭이어서 밭작물을 주로 재배한다.¹⁰⁾

정암촌에는 함경도 출신이 두 가구밖에 없고¹¹⁾ 나머지는 모두 충청북도 출신이며 한쪽은 2023년 5월 현재까지 단 한 가구도 없었다. 마을 이름은 마을에 사시던 ‘서 영감’이라는 분이 마을 뒤편의 산꼭대기에 있는 정자 모양의 바위를 본따 ‘정암(亭巖)’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한·중 수교 직후까지만 해도 정암촌은 안정적이었는데 이후 한국과 연고가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면서 대부분의 다른 조선족 집거지와 마찬가지로 이 마을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충청북도 출신 2세나 3세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중국 내 대도시나 한국으로 떠나서 현지에서 충청북도 출신 장년층은 찾아보기 어렵다. 2023년 5월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에는 노인 몇 분과 요양을 위해 마을에 들어와 있는 몇 분이 전부였고 빈집이 많았다. 정암촌을 제외한 양수진의 조선족 마을은 대부분 함경도 출신 이민자들 속에 일부 한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정암촌은 충청북도에서 이주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충청북도 방언에 기반을 둔, 일종의 언어섬을 이루는 언

-
- 8) 양수진(凉水鎭)은 중국의 행정구역 성(省), 시(市), 현(縣), 진(鎭), 향(鄉), 촌(村) 가운데 ‘진(鎭)’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면(面)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9) 필자가 이용안(李龍安)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가 일흔두 살이었고, 2021년 아흔넷으로 타계하셨다. 이분의 고향은 충청북도 청원군(현 청주시) 강외면 동평리이고 이주 당시 나이는 열 살이었다.
 - 10) 양수진 북쪽으로 높은 삼각봉이 있고 이곳에서 뺨어 내려온 골짜기가 금전골, 서골, 동골, 마상골 등이고, 이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흐르는 물이 차기 때문에 ‘양수(凉水)’라고 하고 상류 지역은 벼농사가 안 된다고 한다.
 - 11) 정암촌에 외지 출신이 이주한 것은 1961년 함경북도 길주 출신의 동네 의사 가족이 처음이고 나중에 한 가족이 더 들어와서 두 가구가 되었다.

어집단이다.¹²⁾ 이 때문에 정암촌 주민들은 중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충청도 방언을 비교적 잘 간직하였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림]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 위치

3. 자료 조사와 분석 방법

3.1. 자료 조사 과정

정암촌의 존재는 연변대학교를 통해 한·중 수교 훨씬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정암촌 방언이 주변 지역과는 다른 언어적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이

12) 임형제(2006a)에서는 조선족의 언어·문화 네트워크의 변화가 문화 섬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암촌은 형성 초기부터 언어적으로 주변과는 이질적인 언어섬을 이루고 있었다.

한국에 알려진 것은 한·중 수교와 함께 1994년 충북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교류 협정을 맺으면서다.

이후 필자는 정암촌의 방언조사를 위해 1999년 7월 중순 정암촌을 처음 방문하였다. 정암촌은 형성 초기에 80호로 구성되었는데, 1999년 당시에는 함경도 출신이 두 가구였고 나머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충청북도 출신이었다. 이 마을도 1980년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 못해 비교적 오랫동안 충북방언을 간직하며 사용하였다.

정암촌 1세대 주 제보자는 청원군(현 청주시) 출신 이용안(1928년생, 당시 72세) 할아버지다. 정암촌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필자가 만든 <충청북도 방언 조사 질문지>로 예비 조사를 하였다. 이어 이듬해에는 <<한국방언조사질문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를 이용하여 정암촌 1세대와 2세대를 조사하였는데, 구어체에 사용하는 어휘와 면담 조사 때 답변하는 어휘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³⁾ 이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필자가 만든 <충청북도 방언 조사 질문지>, <친족 용어 조사 질문지>와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 등을 이용하여 후속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암촌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필자를 안내해준 조선족 대학원생과 제보자의 말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말로 소통하는데, 무엇보다 필자와 제보자는 다 같이 충북 출신인데 무엇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3.2. 제보자

이 글의 목적이 충북 출신 이주민 집단(정암촌)의 어휘사용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제보자도 이에 맞추어 세 부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 부류는 충청북도 청주시(과거 청원군)에서 출생하여 줄곧 그곳에서

13) 임형재(2006b)에서 논의한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코드전환을 어휘 차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방언 차원에서의 코드전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온 노년층 세대로 정암촌의 이주 1세대 제보자와 같은 출신 같은 세대의 화자다. 둘째 부류는 충청북도 청주시(과거 청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정암촌으로 이주한 이주 1세대로 충청북도 방언을 자유롭게 구사했던 화자들이다. 셋째 부류는 정암촌에서 출생하여 조사 당시까지 줄곧 그곳에서 살아온 이주 2세대들이다.

첫째 부류의 제보자는 전형적인 충청북도 방언 화자이므로 이주 집단 화자인 둘째 부류 화자의 언어와 비교기준이 된다. 둘째 부류 화자들의 말이 변하지 않았다면 첫째 부류 화자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언어적 배경을 가졌던 같은 세대의 동일 지역 출신 제보자가 오랜 기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 어휘사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둘째 부류의 제보자가 이주 이후 현지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현지의 언어(조선말)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듯이 첫째 부류의 제보자도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는 언어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¹⁴⁾ 필자가 조사한 둘째 부류 제보자 가운데 첫째 부류 제보자와 나이가 같은 청원군(현 청주시) 출신을 주된 비교 대상 제보자로 삼았다. 언어 습득기(당시 10살)에 청원군 출신 부모를 따라 정암촌으로 이주한 이후 충청북도 방언을 구사하던 부모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여 청주 방언을 잘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부류 제보자는 둘째 부류 화자들의 2세로 한 명은 중전(전문대) 졸업이고, 다른 한 명은 소학교(초등학교) 졸업이고 또 한 명은 초중학교(중학교) 졸업의 학력이다.

필자가 정암촌 화자들과 조사하면서 받은 인상은 연변지역의 일반적인 조선족 말투와는 다르면서도 충청북도 방언을 구사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셋째 부류의 화자들은 가족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충청북도 방언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조선말 표준어도 얼마간

14) 청주 방언이 사회변화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81년에 조사한 《한국방언자료집 Ⅲ 충청북도편》을 참고하였다.

은 알고 있고, 한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이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제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류는 전국순(여, 全菊淳, 1929년생)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황청리에서 출생하여 줄곧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둘째 부류 제보자 이용안(남, 李龍安, 1928년생)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출생이고 10세 때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으로 이주하였다. 신명옥(여, 申明玉, 1937년생)은 이용안 제보자의 아내로 선대 거주지는 충청북도 옥천군이고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신순호(여, 1939년생) 제보자는 선대 거주지가 충청북도 옥천이고 신명옥 할머니의 4촌 동생이다. 나기천(남, 1932년생) 제보자는 선대 거주지가 충청북도 청원군(현 청주시)이다. 서강숙(여, 1941년생) 제보자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며 선대 거주지는 충청북도 중원군(현 충주시)이다. 주 제보자는 이용안 할아버지였고 나머지는 보조제보자다.

셋째 부류 제보자는 세 명으로, 이의재(남, 1963년생)는 정암촌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학력은 중전(전문대)이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거주하며 둘째 부류 제보자 이용안의 둘째 아들이다. 최봉철(남, 1964년생)은 정암촌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학력은 소학교(초등학교) 졸업이며 선대 거주지는 충청북도 보은군이다. 김동길(남, 1967년생)은 정암촌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학력은 초중학교(중학교) 졸업이며 선대 거주지는 충청북도이고 왕청현에서 이주하여 거주한다.

첫째 부류의 제보자와 둘째 부류의 제보자들은 모두 충북 출신의 같은 세대지만 둘째 부류 제보자들은 조선말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이중방언 화자다. 주 제보자인 이용안 할아버지는 충기가 좋아 윈 충북 방언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었다. 셋째 부류 제보자들은 학력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둘째 부류 제보자들에 비해 조선말 사용이 많은 반면 충북 방언의 사용이 적고, 한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 셋째 부류의 김동길 제보자는 같은 세대의 다른 제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말 표준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은 위의 세 부류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비교하여 정암촌 방언이 충청북도 방언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정암촌 방언 화자들이 세대를 달리하면서 어휘사용의 변화를 보인다면 그 변화는 어떤 양상으로 얼마만큼의 변화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3.3. 조사 질문지와 자료 정리 및 분석

자료 조사는 정암촌 방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자료 조사 질문지는 《한국방언조사질문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역어조사질문지》(국립국어원), 《충청북도 방언 조사 질문지》(필자), 《친족 용어 조사 질문지》(필자) 등을 이용하였다.

이들 질문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조사 지역의 일상어를 구술 형식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을 통해 어휘, 음운, 문법 분야의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어휘는 주로 <충청북도 방언 조사 질문지>와 《지역어 조사 질문지》로 조사한 것이다.

전체 조사된 어휘들 가운데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1.농경 2.인체 3.친족 4.식물 5.동물 6.육아 7.수사 등 일곱 개의 부류에 한정하여 정리하였다. 이렇게 어휘 부류별로 정리된 자료는 다시 어휘사용 유형에 따라 여덟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곱 개의 각 어휘 부류를 각각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어떤 어휘들이 충북 방언을 더 잘 유지하고, 어떤 어휘들이 조선말로 먼저 대체고, 어떤 어휘들이 먼저 소멸이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모든 어휘들을 종합하여 어휘사용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어떤 유형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말과 상하위어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한어와 상하위어 관계에 있는 정암촌 방언의 어휘 변화 양상을 파악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암촌 화자들의 어휘사용 변화

4.1. 어휘 부류별 사용 유형

이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부류의 제보자 모두에게서 조사된 ‘농경, 인체, 친족용어, 육아, 동물, 식물, 숫자’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⁵⁾ 이 글의 목표가 이주민 집단인 정암촌 방언의 어휘사용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어휘사용의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유형의 변화가 있고 왜 그런 양상으로 어휘사용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정암촌의 충북 출신 이주민에게서 관찰되는 어휘사용 양상은 크게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은 다시 다양한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 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휘사용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어휘사용의 하위유형들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고자 한다 .

제1유형은 세 부류의 제보자들이 모두 동일한 방언형을 사용하는 경우다. 충북 화자와 정암촌 1세대 및 2세대 화자가 같은 방언형을 사용하는 경우로 의미나 용법 면에서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충북 방언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농경과 관련된 어휘를 예로 보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제1유형

부류	표준어	충북 방언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번지	번지	번지	번지
	호미	호미	호미	호미
	절구	절구	절구	절구
	도리깨	도리깨	도리깨	도리깨

15) 이 글에 언급된 어휘는 박경래(2006, 2011)의 보고서와 박경래(2009, 2018, 2021)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충북 방언 조사 자료 및 친족 용어 조사 자료에서 세 부류의 제보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어휘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의 충북 방언 어휘 자료를 참고하였다.

	절구질	도고질, 절구질	절구질	절구질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외양간	오양간	오양간	오양간
b	벧단	벧단	벧단	벧단
	겨	게	게	게
	꼭쟁이	꼭쟁이, 꼭쟁이	꼭쟁이	꼭쟁이
	옥수수	옥수수, 옥시기	옥시기	옥시기
c	써레	쓰:레	쓰:레	써:레
	새끼	산내끼, 새끼	산내끼	새끼
	흉년	흉년, 승년	승년	흉년

〈표 1〉의 a류는 표준어 어형이 세 부류의 화자 집단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예들이고 b류는 충북 방언형이 세 부류의 화자 집단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예들이다. 충북 방언의 농경과 관련된 어휘 가운데 a,b류에 해당하는 또 다른 어휘로는 ‘보리쌀, 추경(가을갈이), 풀(김), 논두렁(논둑), 밭 갈다(밭갈다), 쌓는다(가리다), 가을(秋), 원두막, 쪽징이(쪽정이), 메수수, 찰수수, 수수쌀’ 등이 있다. 그리고 충북 화자와 정암촌 1세대는 충북 방언을 사용하지만 정암촌 2세대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c류가 있다. c류의 예들은 정암촌 2세대 화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표준어를 학습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¹⁶⁾ 물론 b류와 c류의 충북 화자에게서 관찰되는 ‘메옥수수’나 ‘새끼, 흉년’과 같은 어휘는 사회변화에 따른 표준어 습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표 1〉의 예들은 모두 충북 방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유형의 어휘들에 해당한다. 제1유형의 어휘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본래의 충북 방언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미, 도리깨, 벧단, 승년’과 같이 정암촌 방언의 상위어인 조선말 어휘도 충북 방언형과 같기 때문에 충북 방언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2유형은 정암촌 이주 1세대까지는 충북 방언을 잘 보존하고 있지만 이주 2세대들은 주변 조선말의 영향으로 충북 방언과 조선말 방언 어휘를 합

16) 정암촌 2세대 화자들은 정암촌 1세대와 달리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학교에서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때의 ‘표준어’는 중국 조선어 표준어를 말한다.

게 사용하는 경우다. 정암촌 이주 1세대들의 주 활동 공간은 정암촌인데 반해 이주 2세대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정암촌 주변 지역(석두, 양수, 도문 등)으로 활동 공간이 넓어져 언어적으로 상위어에 속하는 조선말의 영향을 받아 이주 1세대보다 먼저 조선말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예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2유형

표준어	충북 방언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모관	모관, 모자리관	모관	모관, 관주, 뱃모관
갈퀴	갈키	갈키	갈퀴, 갈키, 각지
농기구	연장	연장	농기구, 쟁기 ¹⁷⁾
메좁쌀	메좁쌀	메좁쌀	메좁쌀, 조이메쌀
차좁쌀	차좁쌀	차좁쌀	차좁쌀, 조이찰
방아	방아	방아	방아, 석매 ¹⁸⁾

<표 2>와 같은 제2형의 예들은 ‘엄지/에미손가락(엄지손가락), 식지/둘째손가락(집게손가락), 중지/셋째손가락(가운뎃손가락), 무명지/넷째손가락(약손가락)’과 같이 대상을 가리키는 명확한 명칭을 모르는 경우, 또는 가족 호칭어의 사용에서 ‘여보/이봐요/동무/동미(남편, 아내 호칭), 시동생/새원 이/새워이(도련님), 시동생/시애끼(시동생), 아즈마이/아주머이(아주머니), 시누비/시누이(시누이), 이모부/아즈바이(이모부), 장인/가시아부지(장인), 말아바이/큰아부지(큰아버지), 할머이/아매(할머니, 남의 할머니), 할아부지/아바이(할아버지, 남의 할아버지)’와 같이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집안 전체가 이주하지 않고 일부만 이주함으로써 가족관계 망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의 공백이 있는 경우, 또는 상위 조선족 집단과의 소통을 위해 상위어인 조선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이해된다.

17) ‘농기구’는 학교에서 배운 표준어형이고 ‘쟁기’는 농기구뿐만 아니라 ‘망치, 대패’ 등과 같은 연장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다.

18) ‘석매’는 본래 ‘연자방아’를 뜻하는 말이나 정암촌에는 디딜방아가 없었고 연자방아인 ‘석매’에 방아를 쥔었기 때문에 ‘석매’가 상위어인 ‘방아’의 뜻으로도 쓰인 것이다.

이주 2세들이 충북 방언과 조선말을 함께 사용하는 ‘째보/입째지개(언칭이), 귀머거리/귀떡재(귀머거리), 봉사/소경/눈떡재(소경)’ 등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대상이고, ‘가랭이/가다리/가달(가랑이), 가지/까지(茄子)가지), 나무/낭기(나무), 귀뚜라미/삐뚜라미/설산(귀뚜라미)’ 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여 조선말이 익숙하지만 교육을 통하여 조선말 표준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꽃망울/꽃방울(꽃봉오리)’와 같은 예는 표준어의 ‘꽃’이 어간 재구조화로 인해 어간이 ‘꽃’으로 변한 예에 해당하고, ‘베룩/베룩이/삐룩이(벼룩)’은 충북 방언 ‘베룩/삐룩’이 함경도 방언의 영향을 받아 조선말처럼 파생된 변이형이 사용되는 예다. 즉 ‘베룩이/삐룩이’는 체언 ‘베룩/삐룩’에 접미사 ‘-이’를 붙여 다시 체언을 만드는 함경도 방언의 특징이 반영되어 파생된 것이다. 이와 같이 충북 방언과 조선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주 2세들이 처한 이중방언 사용상황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유형은 이주 1세대와 이주 2세대 모두 충북 방언 어휘와 조선말 어휘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다. 이 유형의 어휘들은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경쟁하는 단계에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충북 방언에 기반한 정암촌이 조선말을 사용하는 상위어 집단에 둘러싸인 언어섬을 이루는 하위어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게 상위어 집단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교류의 결과 상위어 집단 화자들과 공존하게 되면서 상위어 집단의 일부 방언 어휘를 혼용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이중방언을 사용하게 된 예들이다. 충북 방언과 조선말 방언이 공존하는 제3유형의 예들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제3유형

부류	표준어	충북 방언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예쁘다	이뿌다	이뿌다, 곱다	곱다, 이뿌다
	어린애기	어린애기	어린애기, 어린아	어린애/어린아
	줍쌀	줍쌀	줍쌀, 조이쌀	줍쌀, 조이쌀
	벼	벼 ¹⁹⁾ , 베	나라, 베, 베알	벼, 베, 베알

	오이	오이	오이, 외	오이, 외, 왜
	쌀밥	쌀밥	쌀밥, 이팍	쌀밥, 이팍
	이모	이모	이모, 아재 ²⁰⁾	이모, 아재
	병어리	병어리	병어리, 버버리	병어리, 버버리
	남편	남편	남편, 나그네 ²¹⁾	남편, 나그네
	마시다	마시다, 먹다	마시다, 마이다	마시다, 마이다
b	수수	수수	수수, 꼬랑	수수, 꼬랑
	삼	삼	삼, 광챙이	삼, 광챙이
	개구리	개구락지, 개구리	개구리, 하마	개구락지, 기름개구리, 하마
	겨울	겨울	겨울, 동삼	겨울, 동삼

제3유형의 어휘들은 정암촌 1, 2세대 모두에서 충북 방언과 조선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다. 평상시의 대화에서는 “그 아주머이 나그네는 머 하능가 하니까 그 세:관 세:관에 댕기는 아주머이 나그네라 마리어, 그 아주머이 나그네가.”에서와 같이 충북 방언보다 조선말 어휘를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어휘 하나하나를 면접 조사하면 충북 방언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많았다. <표 3>의 b류 어휘들 가운데 조선말 어휘 ‘꼬랑, 광챙이, 하마’는²²⁾ 각각 ‘수수, 삼, 기름개구리’를 뜻하는 한어 ‘高粱[gaoliang], 鋼錘[gāngchā], 蛤蟆[hámá]’를 차용한 말이고, ‘동삼’은 한자어 ‘冬三’을 차용한 말이다. 제3유형의 또 다른 예로 ‘도마도/일년감, 끝/끝이, 나무/낭기/낭구, 송곳/진드레’²³⁾ 등이 있다. 이 제3유형의 어휘들은 정암촌에서 이중방언 사용의 한 모습을

19) 충북 방언과 이주 2세대의 방언 ‘벼’는 표준어에서 차용된 것이다. 이런 예는 조사 과정에서 이주 2세대 제보자 스스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어형이라고 밝힌 것이다(제보자 김동길). 1981년 충북 방언 조사 자료집인 《한국방언자료집》Ⅲ(충청북도 편)에 의하면 ‘벼’의 충북 방언형은 청주시를 기준으로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 방언형은 ‘베’이고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지역 방언형은 ‘나랏’이다.

20) 정암촌 방언과 조선말에서 ‘아재’는 표준어의 ‘이모’뿐만 아니라 ‘고모, 외숙모, 당숙모’ 등 여자를 지칭하거나 호칭하는 말로 쓰인다.

21) ‘나그네’는 자기 남편을 지칭하거나 남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22) ‘하마’는 참개구리과에 속하는 개구로 붉은색이 돌며 주로 산지에서 산다.

23) ‘진드레’는 본래 ‘타래송곳’을 뜻하는 말인데 정암촌에서는 하위어인 ‘진드레’로 상위어인 ‘송곳’의 의미로 사용한다.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유형은 이주 1세대는 충북 방언과 조선말 어휘를 함께 사용하지만 이주 2세대는 조선말 어휘만을 사용하는 경우로 조선말이 충북 방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어휘들은 <표 4>와 같다.

<표 4> 제4유형

부류	표준어	충북 방언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가마니	가마니, 가마이	가마니, 가마스	가마스
	명예	명예	명예, 명지	명지, 유양제 ²⁴⁾
	지게	지게	지게, 쪽지게	쪽지게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가마치	까마치(물까마치)
	새알심	새알스미	새알, 오구레, 오구랭이	오구레, 오구랭이
	수제비	수지비	수지비, 뜨데국, 뜨더국	뜨데국
	아궁이	고쿠락, 아궁이	고료락, 부수께	부수께
	넓적다리	넓적다리	넙적다리, 신다리	신다리
	처녀	처녀	처녀, 새애기	새애기
	장모	장모님, 병모님	장모님, 가시어머이	가시어머이
	쌈바귀	쓴나물, 쌈바귀	쌈바구, 쌈바구, 세토리	세토리
	진달래꽃	창꽃	진달래꽃, 천지꽃	천지꽃
	가부좌튼다	책상다리한다	책상다리한다, 토시구 앉는다	토시구 앉는다
	넓적다리	넙적다리	넙적다리, 신다리	신다리
	사레들리다	사레들리다	살레들렀다, 개졌다	개졌다
	장가가다	장가가다, 장가들다	장가가다, 서방가다	서방가다
돼지우리	돼지막, 돼지울간	돼지우리, 돼지굴	돼지굴	
오래오래	오래오래오래	오래오래, 꼴꼴꼴	꼴꼴꼴, 꼴꼴꼴	
b	품값	품값	품값, 공개[공개]	공개[공개]
	풍구	풍구	풍구, 풍선기	풍선기
	아내	아내, 집사람, 안식구	안식구, 애인	안까이, 애인
	월급, 봉급	월급, 봉급	봉급, 공자, 신봉	공자, 신봉

24) 김동길 제보자에 의하면 ‘명지’는 꽃꽃한 一字(일자) 모양이고 ‘유양제’는 소 한 마리가 끄는 호

위의 예들은 정암촌 1세대에서는 충북 방언과 조선말 어휘를 함께 사용하지만 정암촌 2세대는 전형적인 조선말 어휘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간에 어휘사용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a류의 정암촌 방언 어휘들은 상위어인 조선말, 특히 함경도 방언에서 차용된 것들이다. b류의 정암촌 2세대가 사용하는 ‘공가, 애인, 공자, 신봉’과 ‘풍선기’는 각각 한어(漢語) ‘工價[gōngjià], 愛人[àiren], 工資[gōngzī], 薪俸[xīnfèng]’과 ‘風扇[fēngshàn]’에 기원하는 말이다. ‘공가(工價[gōngjià])’는 인건비, 품삯, 임금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고, ‘애인(愛人[àiren])’은 남편이나 아내를 뜻하는 한어에서 ‘아내’의 뜻만 취한 말이다. ‘공자(工資[gōngzī])’는 본래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하는 ‘임금, 노임’의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정암촌에서는 정기적으로 일하고 받는 보수를 뜻하는 ‘급여, 월급’에 대응하는 말로도 쓰인다. ‘신봉(薪俸[xīnfèng])’은 본래 일을 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를 뜻하는 ‘봉급, 월급’에 대응하는 말인데 정암촌에서는 ‘공자(工資[gōngzī])’와 구별하지 않고 쓰인다. ‘풍선기(風扇機)’는 ‘풍선+기’로 분석할 수 있다. ‘풍선(風扇)’은 바람을 일으키는 수동식 선풍기인데 여기에 기계를 뜻하는 접미사 ‘기(機)’를 붙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機具)를 뜻하는 ‘풍선기’가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어휘는 정암촌 방언의 상위어인 조선말보다 더 상위어인 한어에서 차용된 것이다.

위의 제4유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예로 청암촌 이주 1세대는 충북 방언을 사용하는데 정암촌 이주 2세대는 조선말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세대를 달리하면서 충북 방언에서 조선말로 어휘사용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예는 다음의 <표 5>와 같고, 제4-1유형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리용으로 약간 흰 모양이라고 한다.

〈표 5〉 제4-1유형

부류	표준어	충북 방언형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팽이	팽이	팽이	팍지
	극쟁이	혹쟁이	혹쟁이	후치
	옥수숫단	옥수숫단	옥시깃단	옥시기짱
	쇠죽	소죽, 쇠죽	소죽	여물, 몰여물 ²⁵⁾
b	저드랑	저드랑	저드랑	재개미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이주마이
	시동생	시동생	시동생	시애끼
	깨암	깨금	깨금	깼, 깨암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골괘, 골팽이
	쇠스랑	소시랑	소시랑	차재

‘팍지’는 팽이 가운데 날의 끝이 -자로된 것을 가리키고, ‘후치’는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인데 조선말에서는 주로 밭고랑을 깨고 흙으로 김을 덮거나 북을 주는 데 쓴다는 점에서 극쟁이와는 차이가 있다. 비슷한 농기구로 ‘호리’, ‘가대기’ 등이 있지만 극쟁이와 기능이 가장 비슷한 것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차재’는 상위어인 한어 叉子[chāzi]를 차용한 말이다.

위의 예들 외에도 정암촌 이주 1세대는 ‘번디기, 끌리다, 달기둥저리, 따루따루, 부라부라, 짹짹, 도꼭질/반두깨, 새금파리, 머슴애’와 같이 충북 방언형을 사용하는 데 반해 정암촌 이주 2세대는 각각에 대해 ‘창유²⁶⁾, 끌키다, 닥우리, 용타용타, 가래가래, 짹기짹기/짹기구니, 애기늘음/짜감지, 쪼박/쪼박지, 사나/선서나’와 같이 조선말 어휘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넓게 보면 제4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정암촌 이주 2세대에서 조선말 방언형과 표준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예도 크게 보아 제4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2세대가 1세대와 같이 조선말 방언형을 사용하다가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표준어를 나중에 더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다음의 〈표 6〉과 같고,

25) 정암촌에서는 소를 키울 때 소먹이로 ‘소죽’을 끓여주지 않고 ‘여물’로만 주기 때문에 이주 2세대에서는 ‘소죽’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26) ‘창유’는 ‘번데기’의 한어 ‘蠶蛹[cányǒng]에서 차용한 말이다.

제4-2유형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표 6〉 제4-2유형

부류	표준어	충북 방언형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황소	황소, 숫늬	등굴소	등구리, 등굴소, 황소
	추위	추위	춌이	춌이, 추위
	아주머니	아주머이	아주머이, 아매	아주마이, 아매, 아주머니
	(눈)부시다	부시다, 시다	새굴다	새굴다, 부시다
b	만두	만두	벤세 ²⁷⁾	벤세, 만두

〈표 6〉의 a류는 정암촌 2세대가 정암촌 1세대의 조선말에 표준어 어휘를 더 쓰는 예들이다. 2세대가 쓰는 표준어 어휘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어형이다. 정암촌 2세대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표준어보다 조선말 어휘를 더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표에서 b류의 ‘벤세’는 중국식 음식으로 한어 ‘扁食 [biǎnshí]’를 차용한 말이다. ‘벤세’는 밀가루, 감자, 입쌀 등 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벤세로 일종의 물만두라고 할 수 있다.

제5유형은 정암촌 이주 1세대와 정암촌 이주 2세대 모두 조선말만을 사용하는 경우로 조선말 어휘가 충북 방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조선말 어휘로 사용의 변화가 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예들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제5유형

부류	표준어	충북 방언형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쟁기	쟁기	호리	호리
	마지기	마지기(200평)	짐 ²⁸⁾ , 쌍(열 짐)	짐, 쌍(열 짐)
	거위	게우	게사니	게사니
	메조	메조	메조이	메조이
	옥수수대	옥수수대공	옥시기짱 ²⁹⁾	옥시기짱
	추수하다	추수하다, 걷어들이다	가을하다	가을하다, 가슬하다

27) ‘벤세’는 일종의 물만두로 멧쌀가루에 더운물을 넣고 반죽하여 만두피를 만들고 여기에 돼지고기, 부추, 당면 등의 소를 넣어 만두처럼 만들어 물에 익힌 음식을 말한다(곽충구 2019).

	정수리	장바구리	숫궁기	숫궁기
b	창자	창사, 창사구	배알	배알
	허벅다리	넓적다리	신다리	신다리
	불거리	항아리손님, 불거리	돼지병	돼지병
c	계부	의붓아버지	훗아버지	훗아버지
	아주머니	아주머이	아매	아매
	제부	제부	새워이	새워이
d	민들레	민들레	썸바귀, 무순둘레	썸바귀, 무순둘레
	가지(枝)	가지	아치	아재기
	입덧	입덧	애기서리, 아:서리	애기서리, 아:서리

〈표 7〉의 예들은 정암촌 1, 2 세대 모두 조선말 어휘만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는 정암촌에서 충북 방언이 조선말로 전환된 것을 보여준다. 조선말로 의 전환이 가장 먼저 일어난 어휘는 a류와 같이 충북과는 다른 사회, 문화, 환경적 배경으로 인해 충북 방언으로는 대상이나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없는 경우다. 예컨대 지형상 농사를 지을 때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거기에 쓰이는 ‘명에’도 달라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지에서 쓰는 어휘로 대체해서 쓴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논이나 밭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로 ‘가대기, 호리, 후치’³⁰⁾ 등이 있는데 ‘쟁기’와 기능면에서 가장 가까운 ‘호리’를 쓰는 것이다.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짐’이나 ‘쌍’, 농사짓는 방법이나 갈무리 방법 등 생활 문화와 환경이 다른 데서 비롯된 ‘옥시기쟁, 메조이, 가을하다/가슬하다’나 ‘게사니’와 같은 어휘가 다른 어휘들에 비해

28) ‘짐’은 논이나 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1,000m²를 말한다. 열 짐이 한 쌍이다. 정암촌이용 안 제보자는 한 짐이 100m×100m로 10,000m²라고 하였다.

29) ‘옥시기쟁’은 옥수숫대를 많이 모아놓은 것이다. ‘옥시기쟁’은 충북 방언형 ‘옥시기’에 ‘대’ 또는 ‘대공’을 뜻하는 조선말 방언형 ‘당’의 구개음화형 ‘장’이 결합한 합성형으로 제3의 방언형이라 할만하다.

30) ‘가대기’는 소 두 마리에 매워 논이나 밭, 특히 밭을 갈아엎는 데 쓰이는 농기구이고, ‘호리’는 주로 논을 갈아엎는 데 쓰이고, 후치는 주로 밭고랑을 췌고 흙으로 김을 덮거나 복을 주는 데 쓰이는 농기구다(곽충구 2019 참조). 예에서는 ‘쟁기’와 기능이 가장 비슷한 ‘호리’를 쓴 것이다.

어휘 전환이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b류와 c류는 각각 신체 부위 명칭과 친족 용어와 관련된 어휘인데 의미역에서 중복 방언과 차이가 있는 것들이다. 상위 방언권 화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체 부위 어휘나 친족 용어의 경우 형태상 차이가 큰 어휘들부터 상위어로의 전환을 통하여 소통의 장애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 d류도 b, c류와 마찬가지로 형태상 차이가 큰 어휘들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예들이다. ‘민들레’는 충북에서는 식용하지 않는 풀로 여기던 것인데 정암촌에서는 식용하는 나물로 취급하는 생활 밀착형 어휘이므로 먼저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지(枝)’와 ‘입덧’도 마찬가지다.

생활 밀착형 어휘들 가운데 의미나 용법,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는 제1유형의 어휘가 많은 반면, 자주 쓰이더라도 어휘의 형태상 차이가 크거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의미역이 다른 경우 조선말로 전환하여 제5유형의 어휘를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친족 용어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언니, 오빠, 손자, 손녀, 고모, 동생, 누이, 삼촌, 시아버지, 시어머니, 외삼촌, 외손자, 외손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등과 같이 가족이 있고 촌수가 가까워 늘 사용하는 어휘는 이주 1, 2세대 모두 충북 방언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반면, ‘동서, 아저씨, 아주머니, 형부, 처형, 당숙, 당숙모, 외증조할아버지’ 등과 같이 외족이나 처족 등 가족의 공백이 있거나 촌수가 멀어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친척에 대한 용어는 상대적으로 조선말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암촌 이주민들이 작은 가족 집단으로 이주하여 친척 관계의 공백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주 후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으면서 친척 관계의 공백을 메우게 되자 대상에 대한 지칭이나 호칭 용어로 조선말 어휘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5유형의 어휘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대상이거나 일상에 가까이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대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이나 용도에 차이가 있는 어휘, 그리고 형태상 차이가 큰 어휘 등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먼저 조선말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유형은 정암촌 이주 1세대는 충북 방언만 사용하거나 조선말이 공존하는 데 반해 정암촌 이주 2세대는 어휘사용의 공백이 있는 경우다. 이 유형은 정암촌 이주 2세대에서 어휘 소멸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제6유형

부류	표준어형	충북 방언형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피사리	피사리	피사리	*
	고무래	고물개	고물개, 밀개	*
	자리개질	자리개질	자리개질	*
	개상다리	개상다리	개상다리	*
	물레방아	물레방아	물레방아	*
	빨기	삐삐풀	뽀뽀기, 삐삐기	*
	감(柿)	감	감	*
	밤(栗)	밤	밤	*
b	호드기	호디기	호디기	*
	뜸부기	뜸복새	뜸부기	*
	쌀보리	쌀보리	쌀보리	*
c	오금	오곰쟁이	오곰, 오곰쟁이	*

제6유형의 어휘들은 몇 가지 하위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a류로 충북 지역과 정암촌 지역 간에 기후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 어휘들이다. ‘피사리, 고무래, 자리개질, 개상다리, 물레방아’와 같은 예들은 충북 지역에서 근래에까지 존재했거나 지금도 존재하는 사물이지만 기후의 차이나 생활 풍습의 차이로 인해 정암촌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다. 따라서 정암촌 이주 2세대 이하에서는 이런 어휘를 습득할 기회조차 없어 어휘의 빈칸을 보이게 된 것이다. 예컨대, ‘피사리’는 기후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논농사를 짓지 않아 대상이 없는 경우이고 ‘고무래, 자리개질, 개상다리, 물레방아’는 생활 문화의 차이로 사물이 없는 경우다. ‘빨기, 감, 밤’ 같은 어휘는 기후의 차이로 충북에는 있지만 정암촌에는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정암촌 이주 1세대들이 어릴 때 습득하고 이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아 머릿속

에만 남아 있어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른바 ‘잠자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암촌 이주 2세대들은 애초부터 습득할 수 없었던 어휘들이다. 이에 비해 b류의 ‘호드기’는 정암촌에서도 사용할 법한 어휘들이지만 삶의 여유가 없어 사용하지 않아 이주 1세대들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 ‘잠자는 어휘’라고 할 것이다. ‘뜸부기’는 자연환경의 차이로 이주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쌀보리’도 자연환경과 기후의 차이로 정암촌에는 봄에 심는 보리만 있고 가을에 심는 다양한 종류의 보리가 없어 어휘 체계상의 공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c류는 대상도 있고 어휘도 존재하지만 2세대들이 학습한 적이 없어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표 8>에 보이는 예들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학습할 기회가 없는 어휘들은 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7유형은 중복 방언에서 쓰이는 어휘가 정암촌 이주 1, 2세대 모두에서 어휘적인 빈칸을 보이는 경우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어휘 수는 많지 않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의 어휘장을 이룰 때 기후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정암촌에는 대상 사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하위어도 학습하지 못해서 어휘장의 빈칸이 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습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예들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제7유형

부류	표준어	중복 방언형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가을보리	갈:보리	*	*
	고들빼기	꼬들뻥이	*	*
	청미래덩굴	망개, 맹개, 명개	*	*
b	모과	모과	*	*
	석류	석류	*	*
	으름	으름	*	*
c	두서너(되, 딸)	두서너	*	*
	너댓(개)	너댓	*	*
	여남은	여남은, 여나못	*	*
d	한들	한들	*	하나 들

대여섯	대여섯	*	다섯 여섯
예닐곱	예닐곱, 여닐곱	*	여섯 일곱

충북 방언에서는 쓰이는데 정암촌 방언에서는 쓰이지 않는 제7유형 어휘의 대표적인 예가 a류의 ‘보리’다. 보리는 충북과 정암촌에서 다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어서 두 지역 모두에서 상위어인 ‘보리’는 공유한다. 하지만 보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하위어 ‘가을보리’나 ‘봄보리’ 또는 ‘쌀보리, 늘보리, 찰보리’ 등의 사용은 두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인다. 즉 충북에서는 모든 보리를 다 재배하고 있고 그 각각에 대한 명칭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정암촌은 겨울이 추운 기후여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야 하는 가을보리는 재배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암촌에서 ‘보리’라고 하면 당연히 ‘봄보리’이고 다른 종류의 보리는 재배하지도 않고 재배할 수도 없으므로 해당 어휘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후 환경이 달라 정암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석류, 모과, 으름, 청미래덩굴) 존재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여(고들빼기) 어휘를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어휘가 b류의 식물 이름이다. 이런 류의 어휘는 정암촌 이주 1세대들도 부모 세대로부터 학습하지 못했고 이것이 이주 2세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c와 d류는 수사 가운데 한꺼번에 둘씩 묶어 세는 어휘인데 부모 세대로부터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 방언에서도 장년층 이하의 화자들은 자주 쓰는 한두 가지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d류에 대하여는 이주 2세대에서 줄임말 대신 두 개의 수를 함께 사용하여 어휘장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들이 수사의 사용에서 우리말보다 한어를 더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c, d류의 어휘 소멸을 부추겼을 것으로 여겨진다.³¹⁾

이상에서 살펴본 어휘사용 유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경우의 수가 있다. 예컨대 정암촌 이주 1세대는 충북 방언을 사용하는데 정암촌 이주 2세대는

31) 광충구(2009)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경우 어휘장에서 상위어보다 하위어가 먼저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정암촌에서도 마찬가지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 정암촌 이주 1, 2세대에서 다같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 정암촌 이주 1세대는 표준어를 사용하는데 이주 2세대는 표준어와 조선말 방언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주 1세대는 조선말을 사용하는데 이주 2세대는 중복 방언과 표준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예들은 대부분 메스컴이나 교육에 의해 방언형 대신 표준어를 사용하는 역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 1세대에 비해 이주 2세대들의 표준어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의한 어휘 학습이 언어 사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표준어 학습이 어휘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북 제보자와 정암촌 1세대와 달리 정암촌 2세대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8유형으로 분류하였다.³²⁾ 이런 유형의 예들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제8유형

부류	표준어	중복 방언형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a	써레-질	쓰:레-질	쓰:레-질	써:레-질
	뒤주	두지	두지	뒤주
	귀칭	귀창	귀창	귀칭
	밭가락	밭고락	밭고락	밭가락
	손가락	손고락	손고락	손가락
	까마귀	까마구	까마구	까마귀
b	조	스숙	조이, 스숙	조이, 조
	비듬	비눌	머리비눌	비눌, 비듬
	헛바닥	셋바닥	셋바닥	셋바닥, 헛바닥
	손목	홀목	홀목	홀목, 손목
	외증조할아버지	외징조할아버지	노클아바이	노클아바이, 외증조할아버지
	구유	구수	구수	구시, 구유

제8유형은 위의 <표 10>에서 보듯이 정암촌 2세대에서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경우다. 표준어형은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

32) 여기에서의 '표준어'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정한 조선말 표준어를 의미한다. <표 10>의 표준어는 한국어 표준어와 중국 조선말 표준어 어휘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다.

여 학습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예들이다. a류는 충북 방언이나 정암촌 1세대 방언을 고려할 때 정암촌 2세대에서도 방언형의 사용이 기대되는 예들이지만 표준어형만을 사용한 경우다. 이에 비해 b류는 정암촌 2세대에서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함께 쓰이는 예들이다. 교육을 통한 표준어 학습이 없었다면 방언형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들이다.

이 외에도 어휘장에 따라 조선말을 사용하는 예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 <표 11>의 ‘웃놀이’ 어휘장이다.

<표 11> 웃놀이 어휘장

표준어	충북 방언형	정암촌 1세대	정암촌 2세대
웃놀이	웃놀이	웃놀이, 웃기치기	웃놀이, 웃기치기
웃(사물)	웃	웃, 솨	솨
도	도	또, 똤	똤
개	개	개	개
걸	걸	컬	컬
웃	웃	웃	솨
모	모	모	똥

충북 방언에서는 모두 우리말 어휘를 사용하는 데 비해 정암촌 1세대는 ‘웃기치기’나 ‘솨, 컬’과 같이 함경도 말에 기반을 둔 조선말에서 차용한 방언형을 사용하는 경우다. 반면에 정암촌 2세대는 모든 어휘를 조선말에서 차용한 어휘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일반적인 어휘 사용양상과 달리 상위어보다 하위어들이 먼저 조선말로 전환되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4.2. 어휘 분야별 어휘사용 양상

앞에서 어휘사용 유형을 8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유형들은 어휘를 충북 방언과 정암촌 방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줄 뿐 그것이 전체 어휘사용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기존의 방언에서 어휘사용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어휘사용 유형에 따른 방언사용 변화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언사용 유형과 정도를 어휘 분야별로 살펴본 다음 모든 어휘를 통합하여 방언사용 유형별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정암촌 방언이 어느 유형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변화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충북 방언이 조선말 방언으로 바뀌는 것인데 바뀌는 정도는 어휘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휘 분야에 따라 앞의 4.1.에서 살펴본 여덟 가지 유형으로 방언사용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율은 방언사용 유형별 빈도수를 분야별 어휘의 총수로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암촌 2세대에서 관찰되는 표준어형(학교에서의 학습형)이 관찰되는 빈도수를 조사하여 전체 어휘 수로 나누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표준어 학습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어휘 분야는 ‘농경, 인체, 친족, 식물, 동물과 곤충, 육아, 수사’ 등 일곱 가지로 나누었다. 방언사용 유형은 기본적으로 충북 방언이 조선말 방언으로 전환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분류한 것이다.

세 부류의 제보자 모두에게서 조사된 농경 관련 어휘들만을 방언사용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다른 농경 관련 어휘는 모두 185개다.

<표 12> 농경 관련 어휘사용(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37	25	15	22	36	23	5	22	185
비율	20.0	13.5	8.1	11.9	19.5	12.4	2.7	11.9	100
순위	1	3	7	5	2	4	8	5	

위의 <표 12>를 보면 충북 방언을 유지하고 있는 제1유형(20.0%)과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19.5%)의 비율이 비슷하고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의 비율이 33.6%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충북 방언이 유지되는 제1유형에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을 포함하면 53.6%의 어휘에서 충북 방언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미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과 충북 방언과 조선말 방언형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의 농경 관련 어휘 53.1%는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암촌 제1세대나 제2세대에서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어휘도 15.1%에 달한다. 이는 충북과 정암촌 간의 자연환경 차이로 인해 농경 문화가 다른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제8유형을 포함하여 정암촌 2세대에서 표준어가 사용되는 어휘는 모두 26개로 전체 어휘의 14.1%인데 이는 교육의 영향을 받았거나 메스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연변 조선족들이 학교에서 조선어 학습을 통하여 어휘의 일정 부분을 표준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3〉 인체 관련 어휘사용(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61	27	4	9	18	2	1	3	126
비율	48.4	21.4	3.2	7.1	14.3	1.6	0.8	2.4	100
순위	1	2	5	4	3	7	8	6	

인체 관련 어휘는 총 126개가 조사되었다. 충북 방언이 잘 유지되고 있는 제1유형의 어휘가 절반에 가까운 48.4%로 가장 많았고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의 어휘는 14.3%고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의 어휘는 31.7%에 달한다. 이는 충북 방언의 80.1%가 제1~4유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미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을 포함하여 46.0%의 어휘가 향후 조선말 어휘로 전환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암촌 1세대나 2세대에서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어휘는 2.4%에 지나지 않는다. 농경 관련 어휘와 달리 인체 관련 어휘에서 충북 방언이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자주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표준어가 사용된 어휘는 14개로 11.1%에 지나지 않는다.

〈표 14〉 친족명칭 관련 어휘사용³³⁾(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78	25	6	7	43	0	0	2	161
비율	48.5	15.5	3.7	4.4	26.6	0	0	1.2	100
순위	1	3	5	4	2			6	

친족명칭 관련 어휘는 161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중복 방언이 유지되고 있는 제1유형이 절반 가량인 4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이 26.6%로 많았다. 그리고 중복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이 23.6%였고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예는 관찰되지 않았다. 친족명칭은 72.1%의 어휘에서 중복 방언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중방언 사용을 고려할 때 이미 조선말로 전환된 26.6%를 포함하여 점차 절반 정도인 50.2%의 어휘가 조선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정암촌 2세대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어휘는 제8유형을 포함하여 모두 20개로 전체의 12.4%에 해당한다. 친족명칭에서 중복 방언이 비교적 많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친족을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 당시 함께 이주한 해당 친족이 없거나 친족 간의 거리가 멀어 친족명칭을 모르는 경우 하위어에 상위어인 조선말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자주 쓰이지 않는 친족명칭부터 조선말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5〉 식물 관련 어휘사용(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30	11	3	8	7	14	8	4	85
비율	35.5	12.9	3.5	9.4	8.2	16.5	9.4	4.7	100
순위	1	3	7	4	5	2	4	6	

33) 중복 방언에 대응하는 함경도 방언의 친족명칭에 대하여는 필자의 조사 자료와 곽충구(1993, 2019)를 참고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친족명칭이라도 함경도 방언과 정암촌 방언 간에 의미 차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불완전한 차용의 결과로 여겨진다.

식물 관련 어휘는 85개가 조사되었는데 충북 방언을 유지하는 제1유형이 35.5%로 가장 많았고 조선말로 전환된 어휘는 8.2%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이 25.9%이고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제6, 7유형이 25.9%다. 이는 제1~4유형에 61.4%의 어휘에서 충북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34.1%의 어휘가 조선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암촌에 없는 식물이거나 제보자들이 식물 명칭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경이나 인체, 친족 관련 어휘에 비해 25.9%나 되는 어휘가 빈칸이다. 그 이유는 충북과 정암촌의 자연환경 차이로 충북에 있는 식물들이 정암촌에는 없거나 있더라도 제보자들이 해당 식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8유형을 포함하여 표준어를 사용하는 어휘는 11개로 12.9%에 해당한다.

〈표 16〉 곤충과 동물 관련 어휘사용(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71	13	3	9	18	2	5	12	133
비율	53.4	9.8	2.3	6.8	13.5	1.5	3.8	9.0	100
순위	1	3	7	5	2	8	6	4	

곤충과 동물 관련 어휘는 모두 133개가 조사되었는데 충북 방언을 유지하는 제1유형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3.4%이고 그다음인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의 비율이 13.5%다.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이 18.9%이고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제6, 7유형이 5.4%다. 이는 동물과 곤충 관련 어휘의 72.3%가 사용되고 있지만 32.4%는 조만간 조선말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 곤충과 동물 관련 어휘에서 빈칸을 보이는 것은 충북과 정암촌의 자연환경 차이로 인한 생태계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8유형(9.0%)을 포함하여 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해 학습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어휘는 모두 16개로 12.0%에 해당한다. 충북과 정암촌 지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곤충과 동물 명칭은 일정 부분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을 통해 표준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육아 관련 어휘사용(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14	11	2	4	11	0	0	2	44
비율	31.8	25.0	4.6	9.1	25.0	0	0	4.6	100
순위	1	2	4	3	2			5	

육아 관련 어휘는 모두 44개가 조사되었는데 충북 방언을 유지하는 제1유형이 31.8%이고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이 25.0%로 나타났다.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사용되는 제2~4유형이 38.7%인 반면 어휘의 빈칸은 보이지 않는다. 어휘의 빈칸이 없다는 것은 어떤 방언형이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충북 방언을 사용하는 비율이 70.5%지만 이미 조선말로 전환된 25.0%를 포함한 63.7%의 육아 관련 어휘가 앞으로 조선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제8유형을 비롯하여 표준어를 사용하는 어휘는 모두 9개로 20.5%다. 다른 분야의 어휘에 비해 표준어 사용 비율이 높다.

〈표 18〉 수사 관련 어휘사용(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17	6	3	1	0	0	9	0	35
비율	48.6	17.1	8.6	2.9	0	0	25.7	0	100
순위	1	3	4	5			2		

수사 관련 어휘는 35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충북 방언을 유지하는 제1유형이 48.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어휘 공백을 보이는 제7유형으로 25.7%나 되었다. 그리고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이 28.6%였고 조선말로 전환된 어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와 관련된 어휘는 조선말로 전환된 어휘도 없고 표준어로 교체된 예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방언형과 함께 쓰이는 표준어가 8.6%(3개)다. 수사 관련 어휘는 다른 분야의 어휘와 달리 조선말로 전환되거나 표준어로 교체되는 예를 찾을 수 없다. 수사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어휘여서 다른 어휘들에 비해 나중에 조선

말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다.

4.3. 정암촌의 어휘사용 변화 양상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암촌에서는 어휘 분야에 따라 중복 방언의 보존과 사용 정도가 다른데 이는 어휘 분야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정암촌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사 관련 어휘나 식물 관련 어휘에 공백이 많다는 것은 기후나 지리적인 차이, 생태 환경적인 차이, 지리 환경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해당 사물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드물거나 기능이나 형태가 달라 해당 어휘에 대한 학습 기회가 적거나 없어서 어휘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체나 육아, 친족 관련 명칭에서는 어휘 공백이 없거나 적는데 이는 이 분야의 어휘에 대응하는 사물이 존재하고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친족 관련 어휘의 경우는 다른 부류의 어휘에 비해 많은 어휘가 조선말로 대체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이주민 가족의 가족 구성원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로 보였다. 즉 친족 어휘장 내에 친족을 이루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복 방언 어휘를 사용하지만 친족을 이루는 가족이 없는 경우는 상위어인 조선말을 차용하여 친족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곱 개 부류의 어휘들을 종합하여 어휘사용 유형별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어휘사용 유형별 비율(비율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제8유형	합계
어휘수	308	118	36	60	133	41	28	45	769
비율	40.1	15.3	4.7	7.8	17.3	5.3	3.6	5.9	100
순위	1	3	7	4	2	6	8	5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769개의 조사 어휘 가운데 충북 방언을 유지하는 제1유형이 308개(40.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조선말로 전환된 제5유형이 133개(17.3%)로 많았다. 그리고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제2~4유형이 214개(27.8%)였고,³⁴⁾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제6, 7유형이 69개(8.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522개(67.9%)의 어휘에서 충북 방언형이 사용되고(제1~5형) 있지만 이미 조선말로 전환된 133개의 어휘(제5형)을 포함하여 이중 방언이 사용되는(제2~5형) 347개(45.1%)의 어휘는 향후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말로 전환되거나 소멸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정암촌 2세대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제8유형은 45개(5.9%)로 나타났다. 제8유형을 포함하여 제2~4유형에서 사용되는 표준어형이 사용되는 항목을 포함하면 99개(12.9%)가 된다. 이는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인위적인 어휘 학습을 통해 12.9%만큼의 어휘는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는 어휘 측면에서 충북 방언을 비교적 잘 보존(40.1%)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조선말로 전환될 가능성(45.1%)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는 어휘의 빈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충북 방언 어휘의 점진적인 소멸을 뜻한다. 특히 정암촌 2세대로 갈수록 어휘의 빈칸이 많아진다는 것은 충북 방언 어휘뿐만 아니라 조선말 방언 어휘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말에 대한 어휘력뿐만 아니라 우리말 구사 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위집단 언어인 한어(漢語)로의 어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정암촌 2세대에서 표준어형의 사용 비율이 12.9%(99개)나 된다는 것은 공교육을 통한 어휘 학습의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정암촌 1세대와 달리 공교육의 혜택을 받은 정암촌 2세대 이하의 젊은이들에게서 표준어형의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어휘 학습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위한 조선어 교육 정책의 수립에도 시사

34) 충북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27.8%의 어휘들은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점차 조선말로 대체되거나 소멸해 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하는 바가 크다. 조선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집단이 한어를 사용하는 상위어 집단과 공존할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교체와 언어 전환 현상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선어 교육을 통하여 한어로의 교체와 전환을 저지하거나 적어도 늦출 수는 있다는 근거가 된다.³⁵⁾

정정암촌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집단 전체에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한화(漢化)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조선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글의 목적은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에 거주하는 충북 출신 중국 이주민 집단의 어휘사용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주 개척 당시 정암촌은 오로지 충북 방언만을 사용하는 언어집단이었다. 정암촌은 주변 지역이 주로 함경도 방언에 기반한 조선말이 사용되는 곳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언어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일종의 언어섬을 이루고 있던 곳이다.

이 글은 이런 독특한 성격을 지닌 정암촌 방언이 두 세대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의 언어 환경에 의해 어휘사용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농경, 인체, 친족, 동물, 식물, 육아, 숫자’ 등 7개 분야의 어휘를 8가지 사용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보자는 이주 1세대와 그 자녀 세대 그리고 이주 1세대와 같은 연령층의 충북 토박이 거주자 등 세 부류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어휘는 세 부류의 제보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769개다.

어휘는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음의 네 가지로 요

35) 한성우(2014)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새로 조성된 청도 지역의 조선족 사회에서의 언어 전환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약된다. 첫째는 세 부류의 제보자들이 모두 중복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정암촌 이주 1세대와 2세대 모두에서 중복 방언과 조선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다. 셋째는 정암촌 이주 1, 2세대 모두가 조선말만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넷째는 정암촌 이주 2세대에서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경우다. 어휘의 빈칸을 보인다는 것은 해당 어휘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의 빈칸은 어휘장에서 상위어보다는 하위어에서 보인다는 점에서 어휘 소멸이 하위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하위어가 소멸하면서 그 자리를 상위어가 대신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이주 2세대에서는 교육을 통한 학습으로 일정 부분 표준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복 방언 어휘의 사용 정도와 조선말로 전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769개의 조사 어휘 가운데 중복 방언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40.1%(308개)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중복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경우로 27.8%(214개)였다. 그다음은 조선말로 전환된 경우가 17.3%(133개)였고, 어휘의 빈칸을 보이는 경우도 8.9%(69개)나 되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표준어의 사용 비율이 12.9%(99개)라는 점이다. 이는 조선족의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정암촌 화자들이 중복 방언을 비교적 잘 보존(40.1+27.8=67.9%)하고 있지만 중복 방언과 조선말이 함께 쓰이는 어휘들(27.8%)은 점차 조선말로 전환될 것이고 일부 어휘는 이미 소멸 단계(8.9%)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사회와 조선족 사회의 변화 속도로 볼 때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복 방언 어휘가 정암촌 언어 공동체에서도 잘 보존되고 있는 경우는 인체 관련 어휘나 친족명칭과 같이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다. 반면에 자연 지리적인 환경이나 기후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정암촌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먼저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는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들은 현지 문화를 반영한 조선말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암촌 방언의 어휘사용 변화 양상을 일곱 개의 어휘 분야에 한정하여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면의 한계로 몇몇 어휘 부류들을 포

함하여 미시적인 어휘사용 변화에 대하여는 다루지 못했다. 한 언어집단의 언어사용 변화 양상을 살펴보려면 어휘뿐만 아니라 음운이나 문법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는 후속 작업으로 미룬다.

참고문헌

- 곽충구(1993), <함경도 방언의 친족명칭과 그 지리적 분화>, 《진단학보》 76, 진단학회, 209-239. Kwak, C. G. (1993). Kinship names in the Hamgyeong-do dialect and their geographical differentiation. *The Journal of Chin-Tan Society*, 76, 209-239.
- 곽충구(2009), <중앙아시아 고려말 소멸 과정의 한 양상-50대 고려말 화자의 경우>, 《방언학》 10, 한국방언학회, 57-92. Kwak, C. G. (2009). An aspect of disappearing process of Kore-mal spoken in Central Asia. *The Journal of Korean Dialectology*, 10, 57-92.
-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사전》, 태학사. Kwak, C. G. (2019). *Dictionary of Korean dialects of the Duman River basin*. Taehaksa.
- 권태환(2005),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Kwon, T. H. (2005). *Changes in Korean-Chinese society in China*.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Center.
- 국립국어원(2012), <재중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2). *The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the Korean Chinese's Languag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럼광호(1990), <연변의 이중언어사회에 대한 분석>, 《이중언어학》 7, 이중언어학회, 188-196. Ryom, K. H. (1990). Analysis of Yanbian's bilingual society. *Bilingual Research*, 7, 188-196.
- 박경래(2002a),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113-146. Park, K. R. (2002a). A study of the mother tongue usage by Korean-Chinese people living in Yeonbyeon, Chin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 Korea*, 10(1), 113-146.
- 박경래(2002b),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59-86. Park, K. R. (2002b). A study of the linguistic attitude for the mother tongue of Korean-Chinese people living in Yeonbyeon, Chin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0(2), 59-86.
- 박경래(2006), <2006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국립국어원. Park, K. R. (2006). *2006 Chungbuk regional language survey report(Namilmeyeon, Chungwon-gun, Chungcheongbuk-do)*.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박경래(2009), 《충북 청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Park, K. R. (2009), *Language and life in Cheongwon-gun area, Chungcheongbuk-do*. Taehaksa.
- 박경래(2011), <2011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국립국어원. Park, K. R. (2011). *2011 Regional language survey report for Koreans immigrating to China 1(Yang Su-jin, Domun City, Jilin Province, Chin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박경래(2018), <중국 지린성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 변화와 언어 사용 양상>, 《사회언어학》 26(4), 한국사회언어학회, 57-90. Park, K. R. (2018). Change in language identity and language use of ethnic Koreans living in Jilin, Chin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6(4), 57~90.
- 박경래(2021), 《중국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1)-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 역락. Park, K. R. (2021). *Language and life of Korean immigrants to China (1) - Jeongam Village, Yangsujin, Domun City, Jilin Province, China*. Youkrack.
- 임형재(2006a), <중국 조선족 언어·문화 네트워크의 변화와 문화 섬의 형성>, 《한민족 문화연구》 18, 한민족문화학회, 63-91. Lim, H. J. (2006a). A study of Chinese Korean's culture network change and culture island formation. *The Research of Korean Cultural Studies*, 18, 63-91.
- 임형재(2006b), <중국 조선족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expression)형 코드전환>, 《한민족 문화연구》 19, 한민족문화학회, 123-143. Lim, H. J. (2006b). The expressional code switch of the Chinese-Korean bilingualism. *The Research of Korean Cultural*

- Studies*, 19, 123-14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III》(충청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87). *Korean dialect collection III (Chungcheongbuk-do)*.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Han, S. B., & Kwon, T. H. (1993). *Korean Chinese in Yanbian, China: Social structure and change*.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Center.
- 한성우(2014), 〈중국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전환〉, 《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11-438. Han, S. W. (2014). The language change of Korean-Chinese society in Chin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32, 411-438.